

해남군 조류생태관,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으로 변모

내년 3월 체험형 해남 최초 전문과학관으로 재개관 71㎡ 규모 총 23개 스토리로 구성...탐험형 체험방식

해남군은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내 조류생태관을 활용해 들어설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은 공룡과 과학을 접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 콘텐츠로 내 친구 디노를 찾아 백악기 공룡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은 671㎡ 규모로, 총 23개의 스토리로 구성되며, 탐험형 체험방식

모험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모험 스토리텔링이 적용된다. 주 방문객의 감성에 맞추어 디지털요소를 가미한 나만의 공룡캐릭터, 밝게 빛나는 디노시티, 디노어드벤처, 디노포토존 등으로 다양하게 교육과 재미요소를 함께 느낄 수 있게 연출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해남 최초의 전문과학관으로 재개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류생태관과 조류모이주기 체험장은 8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휴관한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과 보

행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1m 크기의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 등 세계적 학술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룡박물관이 개관하여 매년 20만여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룡 화석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명현관 군수는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조성으로 유아부터 공룡전문가까지 방문할 수 있는 공룡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 공룡박물관과의 연계 시너지를 강화하고,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공룡과 과학원리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산단 입주기업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로우카본 이철 대표, 제2대 회장 취임·㈜전국유지 대표 김전국 임임회장에 공로패 전달

지난 9일 강진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2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강진원 군수,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주용 전남도의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박응렬 원장, 전왕기 강진소방서장 성진119 안전센터장, 이효달 성전면 이장단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정영남 [㈜에스제이기술 대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년여간 협의회 발전을 기념하고 김전국 [㈜전국유지 대표] 임임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제2대 협의회는 지난 7월 20일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로우카본 대표 이철 회장을 비롯해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SDPV 대표 박일서 이사, ㈜강진지라대표 김도윤 감사, ㈜에스제이기술 대표 정영남 사무국장 등 임원진과 함께 출범했다.

이철 회장은 "산단 기업들의 특화 기술을 묶어 기업들 간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만들고, 전처리 탈황제, 이산화탄소 포집 자원화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산단 맞춤형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강진군과 입주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산업단지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취임하시는 제2대 임원진께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다"며 "산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인력난, 출퇴근 교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산업단지는 성전면 명산리와 송학리 일대 20여만 평의 부지에 21개의 기업이 운영 중인 강진 최대의 산업단지이며, 관련 구인·구직 정보는 강진군 일자리 종합안내센터(☎061-430-3066)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시작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수단 도입

진도군이 지난 8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8월 현재 진도군은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3대 운행하고 있다.

해마다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입용 택시가 이용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5대가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광역콜센터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7시~22시로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진도군 관내로 이용요금은 기본 2km까지 500원, 1km당 100원 추가이며 상한액이 놓어촌버스 요금(1,0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30회까지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와 이동편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우처 택시를 홍보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새마을부녀회, 여성이 행복한 안전마을 야간순찰

장흥군새마을부녀회(회장 전순란)는 지난 8일 관산읍부녀회(회장 강해정)와 관산고등학교 및 관산읍 5일장 등 주변을 돌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야간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야간순찰 활동은 주민 스스로 안전마을을 만들고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읍터미널, 유흥업소 주변을 포함한 어둡고 으스스한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안전에 취약한 코스를 선정해 순찰을 실시했다.

김용환 관산파출소장은 부녀회의 야간순찰을 함께하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관산읍부녀회 순찰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군 홈페이지 공개

완도군은 관내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를 완료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등 총 16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업종 별로 영업자의 위생 관리 준수 사항과 권장 사항, 위생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90점 이상은 녹색 등급(최우수), 80~89점은 황색 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 등급(일반) 기준으로 등급화한 결과, 최종 19개소가 녹색 등급(최우수)으로 선정됐다.

향후 우수 업소 표지판을 제공해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관리를 장려하고, 평가 결과 점수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현장 지도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